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2020 가을 제45호



연세대학교회

The Yonsei University Church



사마리아 여인(A Samaritan Woman)



예수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는 먼 길에 지친 채 홀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마침 그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

러 나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이 때에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 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인들과 사마리아 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 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또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의 부정한 과거 생활을 모두 말하게 되자, 그 여인은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 같이 가서 보자, 그 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 하고 알렸다.

(참고 : 요한복음 4:1~42)

목 차

Contents

- 03 시/ 한상완 교우
길

목회칼럼

- 04 이대성 담임목사
연세대학교교회의 사명 다시 다짐하기

특집

- 06 전해영 교우 (제2장년회)
COVID-19와 날씨, 기후, 대기환경
- 08 김기준 교우 (새교우)
내 말을 들어주는 오랜 친구
- 10 이종민 교우 (제2청장년회)
여행, 꽃 그리고 시

교회학교

- 13 중고등부
임준우(서울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코로나 사태와 문제점
- 15 초등부
아이들은 자란다!
- 16 유치부
그리운 아이들의 표정과 웃음소리

어르신 탐방 코너

- 17 유동식 교우 인터뷰

교우소식 / 교회소식

길

우강 友江 한 상 완

기차가 길을 간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공력(功力) 담긴 길을 간다

기차길 옆으로
길에 따라오는 도로 길에도
차가 달린다
긴 길 따라
가을 강도 길을 간다
굽이굽이 흘러 길을 간다
파란 하늘 흰 구름도
길을 내며 흘러간다

만추
울긋불긋 단풍 숲길 지나
길고 긴 길
기차가 간다
나도야 길벗 되어
세월과 함께 길을 간다

연세대학교회의 사명 다시 다짐하기



이 대 성 담임목사

“대학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연세대학교의 학원선교를 지원하며,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다.”(대학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과 고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래 전부터 늘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오면서 그 답을 “연세대학교회”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각 단어에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각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세, 대학, 교회라는 각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늘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각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뜻을 살펴보면서 대학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목회적 구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교회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른 면이 있지만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흔히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라고 합니다. 대학교회도 이 모든 사명을 소홀함 없이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와 교회위원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교회 교인들이 일반 교회에 비해서 목회적 돌봄을 덜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학교의 리소스를 더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구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하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교회입니다. 대학에 속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종합대학의 문화와 소통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기독교의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비판과 반론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리소스들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학교가 마련

한 대책과 계획은 대학교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학교회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학 구성원들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촌 캠퍼스와 의료원에 소속된 학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의 수를 합치면 약 4만 명이 됩니다. 연세 율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물론 졸업생들도 전부 잠재적 대학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학교회는 그동안 점심나눔 프로젝트 지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나눔의 날 등을 통해 대학을 위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캠퍼스 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느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볼보는 역할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결실이 맺혀지는 것을 금방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때가 이를 때에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교회입니다. 과연 “연세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135년 전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 연세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에서 싹이 트고 가지와 줄기가 뻗어나 큰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로 겨레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온 선교사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연세의 기초를 놓은 선교사들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기에 구하기 위해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최근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의 도전”이라는 기치 아래 Vision Yonsei 150을 선포하여 “연세다움”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포용과 공존을 지향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세다움이란 연세의 설립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함께, 개척정신, 협동정신, 열린 마음, 탐구심, 정의감, 박애주의 등을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회라는 이름만 곰곰이 생각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는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이 사명을 우리만큼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인 각자에게는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같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담임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연세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COVID-19와 날씨, 기후, 대기환경



전혜영 교수 (제2장년회)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발 COVID-19에 대해 공식적으로 “Pandemic”을 선언한 이후, 어느덧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무래도 2020년은 COVID-19의 4계절을 모두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COVID-19의 급작스러운 발생과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에서조차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과학 문명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COVID-19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COVID-19와 날씨, 기후 및 대기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나, 지면의 제약상 본 기고문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려고 한다. 첫째, 날씨, 기후 및 대기환경이 COVID-19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가 하는 부분이다. 기후 환경적 요소가 COVID-19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온도, 습도 등 기상학적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병원균들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및 습도의 상승이 COVID-19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은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어지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인근으로 모여 들게 되면서 인간-동물 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는 상황 역시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기 오염 물질 역시 COVID-19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 물질이 COVID-19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로 인한 사망자 숫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2월의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높았던 북부 이탈리아와 스페인 중심 지역의 3월 이후 COVID-19 사망자 수가 NO₂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프랑스나 독일보다 현저하게 많았다(Ogen 2020).

현재 지구온난화가 가장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북극이다. 극지 툰드라의 얼음이 녹고 기온이 상승하면 동토에 서식하

던 미생물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고,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했던 균들의 출현도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2020년, 북극의 기온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지난 6월 북극 시베리아 동부 해안 지역의 온도는 38℃까지 올라갔고 노르웨이 스발바르에서는 7월 25일 역대 최고 기온인 21.7℃를 기록하였는데, 평년의 7월 평균 기온이 5.9℃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Heatwave”는 이례적인 기온 상승뿐 아니라 전례 없는 북극의 산불을 유발하여 북극의 대기환경 문제를 심화시키고 북극 러시아 해안의 해빙 감소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북극의 극단적인 기온 상승은, 기후변화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북극의 극한 기상 현상은 “tele-connection” 과정을 통하여 중위도 및 저위도의 기상이나 기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나라 8월의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는 북극의 고온과 관련된 제트류의 변화 및 기압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COVID-19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가 취한 이동 제한 및 산업 규제 정책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농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다. 각국의 정책 및 대응에 따라 산업 활동 저하의 정도 및 교통수단 이용 감소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COVID-19는 마치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실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대기과학자들에게 매우 값진 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COVID-19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CO2 농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5월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CO2 농도는 기대와는 달리 일 평균값이 418.12ppm으로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결국 2019년에 비해서 증가세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어도, 2020년에도 CO2 농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OVID-19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그 감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O2 농도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CO2 감축량이 더 커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COVID-19는 4차 산업혁명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인류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가 “Tipping point”로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출처: www.istockphoto.com

내 말을 들어주는 오랜 친구



김기준 교수

네모바지 스폰지 밥/ 바다친구 스폰지 밥/
우리친구 스폰지 밥/ 스폰지 밥~ 내 친구
~.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끌었던 만화영화 스
폰지 밥. 미국의 원폭실험을 풍자한 해저도
시, 비키니 시티를 배경으로 한 블랙코미디
애니메이션의 유쾌하고 발랄한 주인공. 오
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온몸
에 구멍이 숭숭 뚫린 해면입니다. 해면
(sponge)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펀지처럼 구
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
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부터 물주머니, 탐폰, 수세미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죠. 이러한 이유로 이때부
터 상업 잠수가 시작되었답니다.

해면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다세포 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며, 하등하다고 여겨
지는 동물입니다. 이들보다 더 원시적인 동
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동물밖
에는 없습니다. 진화 및 계통 발생학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의 조상이 되는 쉼이쥬. 현
재 지구의 바다와 호수에는 1만 5000종 이
상의 해면이 살고 있으며, 그 형태와 크기,
색깔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해면은 근육, 신
경, 소화계 등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입이 없는 대신 물이 들어오는 작은
구멍이 몸 바깥쪽에 무수히 많은데, 이것들
은 미로처럼 얽혀있는 미세한 관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의 벽에는 채찍 모양의
털을 앞뒤로 휘저어 물이 지나가게 하는 동
정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몸의 10배 이상의 엄청난 양의 물을 펌프질
하여, 먹이 입자와 영양분들을 다른 세포가
잡아먹게 합니다. 왜 해면이 동물인 이유가
이해되시죠? 해면은 항문이 없는 대신 물이
나가는 큰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해면 중에서, 유난히 길고 큰
출수관을 가진, 향아리해면을 저는 특히 좋
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다 깊은 곳의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 자신
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 하얀 눈빛의 매
력적인 몸을 가진 향아리해면들이 제 친구
들이죠. 저는 잠수를 갈 때마다 이들의 귀에
살짝기 나의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나
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
도 하고,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쓰고 싶은, 쓰고 있는 ‘수중시’
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늘

내 이야기에 귀를 쫓긋 열어줍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조금 더 힘내.....” 맞장구도 쳐주곤 합니다. 단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낮 볶히지 않는,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내 친구들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들에게서 얻은 마노알라이드라는 물질은 항염증작용이 있으며, 디스코더몰라이드는 항암제로 개발되었으며, 아라-A와 아라-T는 항바이러스 약물 전구물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뛰어난 재생능력에 있습니다. 잘게 부수어, 채로 곱게 걸러 세포들을 하나하나 다 분리시켜 놓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 불사의 능력에 입을 다물 수밖에요. 두 손을 모을 수밖에요.

간혹 바닷속에서 이들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또한 무척 신비합니다. 마치 은은한 향이 번지듯, 파스한 햇살에 아지랑이가 날리듯, 여기저기서 정자와 알들의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오릅니다. 생명에 대한 경이, 환희, 축복이 가득한 바다입니다.

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안 들린다/ 네! 선장님!!/ 우~ 와우~. 네모네모 스펀지송이 들려옵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묘한 중독성이 있던 그 노래.

황금빛 태양이 불타는, 정열의 여름 바다가 정다운 내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잘 익어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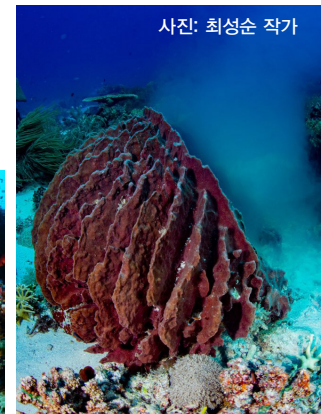


사진: 최성순 작가

내 친구 스펀지

스펀지야 스펀지야
항아리 스펀지야

흘러버린 시간들에
그 고운 빛마저 바래버리고
바위에 거꾸로 매달려있구나

중년의 닥터 김
스펀지에 얼굴을 기대어
한참을 속삭인다

뭐라고 말하는 걸까

지난밤에 보았던
철철 흐르던 눈물

아 그렇구나

너의 마음 넉넉한 곳에
그의 아픔을 담아주었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구나

여행, 꽃 그리고 시



이 종 민 교수 (제1청장년회)

여행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중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여행을 마음껏 다니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갈 곳은 마땅치 않고 그러다 타협을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행처럼 다니게 된 곳이 있는데 우리 집 바로 뒤에 있는 돌레길이다. 이사 온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산책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지내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한다 치고 획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의 세 번째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편은 지겹지도 않냐며 다른 길도 좀 가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한 놈(?)만 패는 성격이 있는 나는 늘 대부분 같은 코스를 돌게 된다. 물론, 남편 말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시도를 한다면 새로운 길과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겠지만, 늘 가던 길을 다니며 얻게 되는 재미도 쓸쓸하기에 고집스럽게도 나는 같은 길을 나선다. 어제 보았던 그 꽃이 오늘도 그대로 있는지, 어제 못 보던 녀석인데 오늘 새로 핀 꽃은 어떤 녀석인지, 어제 막 올라온 꽃봉우리가 오늘은 얼마나 컸는지 ‘어디보자~’하며 그 자리에 멈춰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재미를 어찌 새로운 길을 찾는 재미에 비교할까 말이다.

꽃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소소한 동네 산 길 여행 덕분에 봄을 지나 여름, 가을의 시작인 지금까지 많은 꽃들을 만났다. 조용하게 봄을 알리는 진달래를 시작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이 아쉬워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느 날 아카시아 꽃들이 하얗게 피어나더니, 아이 키만큼 큰 코스모스까지.....곧 있으면 국화가 필 차례다.

혼자서 하는 여행이다 보니 천천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다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찍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저 활짝 핀 꽃이 너무 예뻐다. 이 꽃, 저

꽃 꺾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주어진 삶을 다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꽃잎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 떨어진 꽃잎이 걸어오는 말들을 말이다.

시 1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많은 ‘시’들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긴 세월을 지나, 이제 아무 ‘시’라도 한 편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시’를 쓰게 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요즘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면 온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덕분에 절로 시 한 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결국 삶이 시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삶의 희노애락이 쌓여야 하는 법, 어찌면 그동안 나는 너무도 성급하게 시를 쓰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랬기 때문에 꽃을 만나도 자세히 살필 줄 몰랐고 심지어 얼마나 예쁜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나.....

시 2

더 많은 희노애락이 쌓여야 하는데, 아카시아가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욕심을 부려 시를 쓰고야 말았다.

영 원

이종민

이 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흔적조차 사라질 내 존재와 의미를 각인시키려 내 몸을 던졌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너를 보았다
우리 각자는 무엇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가
우리 서로 닿을 수 없지만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자
우리 서로 붙잡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고
우리 서로의 모습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또 다시 피어나자
그리고 만나자



코로나 시기에 선생으로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현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누가 누가 더 힘든가 내기하는 것 같아서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현재 학급 아이들과 심지어 학부모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하려니 그것도 영 내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깨달았어요. 저 사진 속 한 떨기 꽃과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외로웠는지를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찍으며 알게 되었답니다. 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꽃잎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꽃이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아까웠어요. 이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이란 것을 느끼게 되고부터는 한 아이, 한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해요. 이 마음이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여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싶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해요.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코로나 사태와 문제점

중고등부 임 준 우
서울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참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무렵 나는 막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였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던 터라 학업에 신경을 쓰기 바빴고 초기 뉴스에 COVID-19가 이슈로 떠오를 무렵에도 다른 전염병들처럼 금방 진정되거나 중국 내에서만 유행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했을 교회 예배나 모임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 또한 크게 바뀌어 버렸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었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경험도 해보고, 수능을 포함한 대학 입시 일정도 모두 미루어졌다. 학교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을 동아리조차 1학기는 모두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점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

먼저 나는 작년에 학교에서 친구들, 후배들과 동아리를 상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끈끈한 정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1학기는 동아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작년 같으면 지금쯤 같이 식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 친목을 다졌겠지만, 올해 동아리 1~2학년 부원들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생활한다. 동아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하는 경우는 대면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얼마 전 뉴스에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나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신앙심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는 해도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더 확고해진다는 게 신학생 시절부터 배우고 체득한 사실”이라며 “서로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밖 이웃들에게도 눈길을 돌리지 않게 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며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비대면 사회가 찾아왔다. 이러한 비대면 소통의 장점도 분명 있지만, 우리 사회가 비대면에 익숙해지다 보면 일상의 대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하고 감정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문자화된 언어 이외의 비언어적 언어에 반응하는 방법은 퇴화하고, 표정이나 눈빛, 목소리의 높낮이, 몸짓과 같은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전달에만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기존의 상황 바깥의 예외적인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도 있다. 상황마다 가지는 맥락이 있지만, 그 맥락을 보는 능력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걱정되는 점은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부분이다. 앞에서 다뤘던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룰 부분은 내 개인적인 부분과 더 연관이 크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수능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등교 횟수가 줄어들었고 온라인으로도 등교하였으며, 활동들도 온라인 진행도 많아져서 작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짧은 기간과 온라인이라는 점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활동과 노력들이 작년에 비해 빛을 발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더운 여름날에도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기에, 학교에서 생활할 때 피로도가 높고 쉽게 지친다. 작년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모임을 가졌지만 올해는 이러한 모임이 취소나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여도 몇몇 친구들은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화상회의를 할 수 없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비대면 진행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 사실 비대면 사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였고 곧 다가올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기에 준비도 안된 상태로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어찌 됐건 코로나 사태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왔고 최대한 빨리 종식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고, 이 힘든 시기를 당장은 벗어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자. 마태복음에서 등불을 준비한 자처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 일이다.

아이들은 자란다!

초등부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워도 아이들은 무
력무력 자랍니다. 아이들의 미소는 마스크
크로 가릴 수 없고, 아이들의 꿈은 사회
적 거리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은 자라고, 아이들이 자란 만
큼 우리도 자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의 사랑은 날마다 자랍니다.



7월 26일 초등부 현장예배



한노아



황지윤



정지예



황도훈



한다인



손정현



김희재



한윤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함께합니다!



강 유



정유화



김삼웰



경도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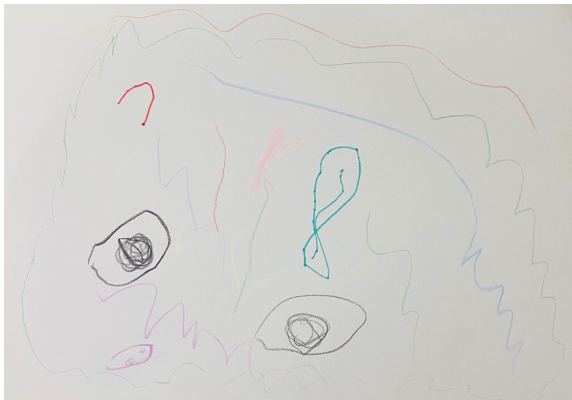
강지현

그리운 아이들의 표정과 웃음소리

유치부

유치부는 예배 영상과 2부 만들기 활동 영상을 주일 오전 9:30분에 학부모 단톡방에 올리고 부모님들의 협력하에 아이들이 예배와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중 옛새동 안 단톡방을 통해 정오기도를 하고 있으며 재능을 따라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아이들을 6명의 교사들과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영상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3-7세 아이들을 유치부에서 섬기고 있으니 교우님들의 참여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김하유 4세)



우리가족 (김지유 6세)



밖에 나가 놀고싶어요 (김아인 5세)



공룡 (박수민 4세)

유동식 교우 인터뷰

2020년 3월 첫주부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교회(이하 대학교교회)에서는 2020년 9월에 발간될 소식지부터 어르신 탐방 코너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근황을 전하고, 아울러 대학교교회와 얽힌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 대학교교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후속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첫 회에 유동식 선생님을 방문하여 인터뷰 녹음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유동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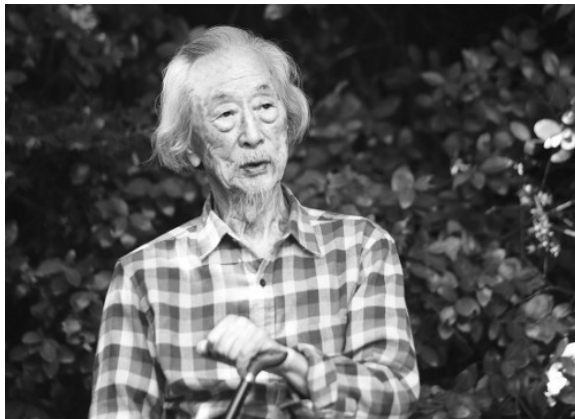


사진: 조선일보

1.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니 하루 종일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 책도 읽고 뭐 지금은 아까 얘기했나... 내가 지나온 백년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면서 적는데 그러니까는 자료를 모두 꺼내놔서 제일 많은 자료가 사진들 그거 몇백장이나 되잖아. 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야. 우리 아이들은 봐도 모르지. 나한테는 전부가 의미있는 사진인데.

그 다음에 내가 글을 많이 썼어. 전집 첫 번째 전집 열권 나오고 자꾸 보충해 다섯 권을 썼어. 열다섯 권을 쓰니까 그걸 이렇게 놓구서 회상하니까 이제 삶과 또 하나는 현재 신앙이 제일 중요한건 죽음이야.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데 신앙이 무엇이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히 죽음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책도 그 전에도 읽었지만 지금 다시 꺼내서 그거를 정리하느라고 그러는데 그전처럼 머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신 핵심만. 쓴거를(앞의 것) 다 잊어버려도 돼. 김목사가 만들어줬지마는 요한복음 십사장 이십절에 이십이절인가 삼태극. 그거에 대한 묵상을 매일,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성존재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삶과 죽음을 내다보는 거지.

요즘 와서는 주로 죽음에 대한 거, 집사람이 떠난 다음에는 사후에 생명에 대한 그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냐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집사람 사진에 거실 앞에 있는데 대

화를 하는 거지. 그래 그럼 내년이면 우리 한국나이로 백세되니까, 부르실 때가 내 눈앞에 와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성서적인 이해에 대해서 아주 실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논문 쓰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가야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일본 학병으로 끌려가서 그때가 기본적인 죽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일본 망할 때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가고시마에 있었는데,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지마는 그때 죽음... 그때 해방 팔일오 해방이라는 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체험이야. 나한테는 그걸 원체험... 역사학에서 쓰는 말이야. 우오게시시테라고 원체험. 나는 팔일오 해방이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다음에 해방에 나오다가서 쪼그만 어선타고 나오다가 풍랑 만나서 또 한번 죽음을... 그 얘기를 내가 했었나? 목선이야. 목선을 타고선 나오다가 풍랑에 엔진이 꺼지고... 그래서 다들 죽은 줄 알았지. 칠십명이 탔었는데, 그때 학병하고 징병제도가 생겨서... - 일반 나이 열아홉살 된 청년들이 모두 있었어. 학병이 몇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번 체험을 했어. 파선 했는데 일본 배가 와서 건져줬어. 그래서 그때 겨우 간 곳이 대마도야

2. 대학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그때와 지금의 대학교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였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꼽으신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는 조직적인 게 없었어. 그냥 그저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이환신 감독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해집고 가. 그런 거 다 없어. 그때는 아주 소수야. 소수. 한 사오십명도 안돼. 그냥 소수가 모였어. 그땐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안 나오고, 아주 그냥 개인 속회보듯... 들었어. 신과대학 교수들은 전부 자기 교파들로 가고...

자기 교회 없는 사람들이 모인 셈이지 말하자면. 아주 소수들이 모였댔어. 밤낮 이완신(이환신) 감독이 설교하고, 아주 초창기 참 이 숫자 불어난 게 굉장한 거야. 루스 파운데이션이라고 거기서 돈을 쥐가지고 지은 거거든. 루스 파운데이션이 감리교야. 루스 파운데이션이 선교재단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던 몇 개 대학에 루스 채플이 있어

대학교회 하나 단점이고 장점은 주일날 한번 예배보고 흠여지니까, 개척 교회는 저녁에 배 보고 수요일에 배 보고

그러니까는 자꾸 만나니까는 친한 사람은 아주 친해지지만, 서먹한 사람은 아주 서먹해지거든. 한번 모이기 때문에 늘 그리워하지. 모이는 걸 기다리지. 나는 그래, 나는 교회라는 걸 늘 기다리고, 여기 와야 친구들 만나니까. 한주일 동안 집에 혼자 살다가 말이야. 교제하고, 더군다나 근자에 와서는 장년회 방사장이랑 그 일행이 말이야, 늘 예배 보구선 같이 점심 먹구선 그제 하나의 교제... 그제 늘 기다렸지 나는... 기다렸는데, 그제 못하게 되니까 한달 내내 집에 앉아 있을라니까 힘들지....

3. 선생님께서는 매년 1월 둘째 주에 설교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둘째 주일에 설교했지? 오래 됐어. 이제준 목사 때부터거든. 꽤 오래 됐어. 첫째 주는 담임 목사가 하고 그 답엔 내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 전도사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설교를 했어. 그래 그게 아주 하나의 전통이 됐어. 근데 그 잡지에다가 내 원고가 다 들어간 거는 그 전에는 설교를 거기에 실어주지 않았나봐. 그 금년 말고 작년에 완전하게 내 원고를 써서 두 페이지인가 그게 내 신앙고백이나 마찬가지야. 복음적 실존. 그거 핵심을 메달로 만들어서 나한테 줬고...

4. 대학교회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내 재직 때는 회갑, 그 답에 칠순, 고회, 고회 문집을 내가지고 출판. 그 답에 팔십, 구십, 그 마디마다 나 잔치 해 준 곳이 교회야... 나는 대학교회 그 그러니깐 전집이 나오고 그 답에 이 신과대학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전집도 신과대학이 했지마는, 동창들이 한 거지. 출판기념회를 여기서 했고, 그 답에 그 내 개인전을 했어. 여기서 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것도 신과대학에서 하고, 주최는 교회가 연결을 해서 한 거고... 마디마다 회갑, 칠순, 개인전 내가... - 근데 그때마다 누가 사회를 했냐면 이제준 목사. 내가 그 한번 답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목사가 한번만 더 해 줄 거라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 한 번 더 해 줄 거라고. 그런 답사를 한 것으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또 모르지 뭘. 이제 내년에 백세... 또 뭐... 지금 내가 쓰는 걸 그때 맞춰서(해줄는지)...

5. 대학교회가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학교회가 말아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마디로 하면 에큐메니즘이야. 총 교파를 망라한 WCC라고 있지. 세계교회협의회. 한 교파 소속이 아니야. 모든 교파를... 그게 여기 특징이야. 여기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부목사했던 박노순(박노훈) 그 분은 성결교야, 모든 교파... 이게 아주 특징이야. 담임 목사는 그거 생각해야 해. 어느 교파에 치우치면 안 돼. 교파 교리를 넘어서서 세계 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

대학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붙잡은 신앙공동체이지. 그 복음의 핵심. 그 기독교 방송들 쭉 듣고 있으면 핵심이 뭔지 잘 모르는 설교를 자꾸 하는데. 복음의 핵심을 잡고 있지, 사람마다. 특색이 다르긴 해. 나는 요한복음에서 잡고 있지. 내가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 이 십장. 거기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오메가 포인트야.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된 건데. 그게 핵심인데. 다른 건 다 그거를 위한 거라고. 나는 보여지고 성서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건데. 사람마다 관념이 다르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결국 하나가 되는 것. 나는 삼태극을 복음의 핵심으로 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앞에다 놓구서 조금 있다가 세상이 너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성경의 핵심은 그거 같아.

교우소식 / 교회소식

교우소식

수상, 임명

- 하희송 교우: 국립 카자흐스탄대학(GSP) 정책대학원 조교수 채용
- 장정숙 교우: 대안신당 원내대표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 1월12일
- 서승환 총장: 2월 3일, 총장취임예배
- 김명준, 조원주 교우: 제주국제합창심포지엄 지휘 경연대회 1위(김명준), 2위(조원주)
- 장정숙 교우: 임명,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 2월 17일
- 김명수 전도사: 목사 안수, 5월 25일(월), 양재 온누리교회
- 박주성 교우: 제19회 국립오페라단 성악콩쿠르 은상수상(바리톤)
- 김우진 교우: 시티필하모니오케스트라콩쿠르 1위 (전체대상), 한음음악콩쿠르 1위 (전체우수상)

입학, 졸업

- 오의영 교우: Nürnberg Musik Hochschule 성악 석사과정 합격
- 신정미 전도사: 졸업, 연합신학대학원 상담교정학 박사

부임, 퇴임

- 김대일 교우: 정년퇴임, 경동대학교, 2월 29일
- 한인철 목사: 정년퇴임, 연세대학교, 2월 29일
- 정종훈 목사 이임, 이대성 담임목사 부임, 3월 1일
- 김해옥 지휘자: 퇴임, 7월 5일
- 박송이 지휘자: 부임, 7월 5일
- 박종준 교우: 정년퇴임, 서경대학교, 8월 30일
- 오사랑 목사: 이임, 8월 30일, 명지대학교 교목으로 임용
- 이해석 목사: 부임, 전임사역, 대학부/행정

소 천

- 손차구 교우: 모친상, 3월 20일
- 정운형 목사/정순자 교우: 故 김선이 권사, 5월 23일
- 방 숙 교우: 소천, 6월 16일
- 고애란 교우: 모친상, 7월 9일

결 혼

- 김하성/국경진 교우: 결혼, 1월18일(토)
- 문성빈/백영숙 교우 장녀(문은서): 결혼, 2월 22일(토)
- 오의영/현 진 교우: 결혼, 3월 28일(토)
- 허경진/이 숙 교우: 장남결혼(허글/윤선영), 6월 6일(토)
- 정운형/정순자 교우: 장남결혼(정승택/최예영), 8월 29일(토)

출 산

- 김기천/심지영 교우: 득남, 2월 20일
- 김하성/국경진 교우(김영민/정윤경): 득녀(김예인), 7월 10일

출판전시

- 한상완 교우: 시집출판, 환생(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정운형 목사: 출판, 『한국 근대의학의 선구자 오궁선』, 역사공간
- 이 숙 교우: 출판,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교사』, 보고서
- 광동순 교우: 유튜브채널 [Musician K] 오픈, 故 광상수 교수님, 광동순 교우 음악 합창연주 등 계속 등재 중

새교우 환영

- 조원주, 이정인, 나군호, 이선희, 김준형, 박교영, 김영은, 한익수, 한승주(중고등부), 한다인(초등부)

교회소식

1월

- 5일: 어려운지역 주민을 위한 성탄음악회 헌금 『서대문구 100가정 보듬기 사업후원』으로 6,220,000원을 후원
- 12일: 행복나눔 루스장터
- 26일: 90세 이상 어르신 세배, 전교인 오찬, 전교인 웃놀이 대회

2월

- 23일: 교회학교 졸업예배

3월

-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으로 30,000,000원 (삼천만원)을 기부

4월

- 5일: 신규 교회회원 임명
제2장년회 회장: 전혜영/ 제2청장년회 회장: 신수연/
홍보출판 분과위원장: 이 숙/ 경조사 분과위원장: 이행자/
교육 분과위원장: 김우택/ 봉사 분과위원장: 황순옥/
교회학교장: 최경예/ 친교 분과위원장: 김신옥
- 12일: 주일성서연구 온라인 개강
▷ 강사: 정대경 목사(명지대학교 교목)
▷ 주제: 신정론 성서연구
- 2020년 1학기 장학금(총 30명) 39,612,000원을 지급

6월

- 박명윤/이행자 교우께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방송영상장비 컴퓨터와 카메라 2대 등(1,000만원 상당)을 물품기증

8월

- 14일~15일: 전교인 온라인 수양회
▷ 주 제: BACK TO THE BASIC
▷ 강 사: 조정민 목사(베이직 교회)
- 16일: 세례식 ▷ 성인 세례 : 김기준, 이선희

9월

- 13일: 2020년 2학기 장학금(총 25명) 36,342,000원 지급